

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

NEW
순복음Life
제15호

발행일 : 2017. 7. 2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이니라 (출23:16)

기쁨의 첫 열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E FEAS
HAI



<이달의 신앙 간증>

- 장명희 집사-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두루 살피시고 권능의 두 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이루심의 섭리를 간증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어느덧 당진순복음교회 등록한지 20여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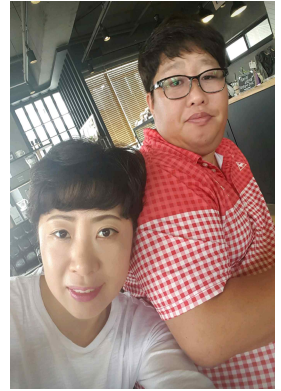
나의 삶이 전부이신 하나님!

처음 평신도부터 집사 직분을 받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시켜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고 섬겨주셨던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몸이 힘들어져 갔습니다.

올해는 더더욱.....

흔히 나이 마흔이 넘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갔고 아프면 회복도 더디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힘들어만 갔습니다. 내가 힘드니 가족들과의 관계도 주님 안에서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큰소리가 나고 날마다의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헌금생활, 예배생활, 가정생활, 아들 경환이의 문제까지 영적으로 막히니 답답하고 정말 살겠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 얼마나 공감 하십니까? 그러던 중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몇 년 동안 1년을 하나님께 맡기며 해왔던 금식기도가 이어졌는데 올해는 금식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었습니다. 계속 감동은 주시는데 막상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두렵기만 했거든요.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다가 거의 한 달이 지났었습니다.

답답함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회복 되지 않고 답답한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깨우쳐주신 것도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결단하라고 주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수요예배 때 주신 강해 말씀이(마6:16~18) 금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다시금 내 가슴을 후려치며 결정하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금식은 영혼을 맑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홍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강한 기도라고…….

그리하여 부활절이 지나고 에스더 행사가 잡혀 있는 4월24일~26일까지 작정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편 조집사님도 같이 기도 하자는 의미로 달력에 체크 해 적어놓았죠.

기도제목은 조집사님과 영적으로 부딪혔던 것들, 경환이 군복무 이후의 신앙생활과 직장문제, 나의 명성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식기도에 첫째 날 인간의 의가 강한 터라 힘들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새벽기도와 낮 한시 기도모임에 참석했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부르며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둘째 날 새벽예배를 가려고 일어나는데 어지럽고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앉아 기도했죠. 새벽예배를 통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으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거뜬히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날도 하나님은 응답 해 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호산나 찬양대를 맡고 있는 사역에 그동안 목소리가 탁해 그만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목소리가 정말 곱게 청아하게 나오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이 지나려 할 때 조집사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보고 있더군요. 그러나 기도하고 시작한 금식기도였기에 그 시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체는 힘들지만 영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3일째 수요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맞추어 둔 알람이 시간보다 시간 반 일찍 눈이 떠져 곧바로 일어나 샤워를 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갔습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도할 때에도 강한 전율을 느꼈고 명성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일동안 음식하고 살림하는 것이 버겁기도 했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이어갔습니다. 수요 오전예배가 있던 날 서둘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금식하는 티나지 않게 예쁘게 화장도 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송미숙 권철님이 차량운행 해 주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힘들지 않게 성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 온몸에 손과 발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열을 만졌을 때 느낀 처럼요. 바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로 온몸을 따뜻하게 해 달라는 기도였죠. 그런 다음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 두곡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어찌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배 도중 계속 허리가 아파서 성경공부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는 사모님 말씀에 허리가 아파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지요. 내려와서 사모님께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집으로 내려와 영성의 지경을 넓히는 작업을 이어 계속하고 있을 때 조집사님이 걱정이 되었나봐요. 아마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었으리라 믿어요. 금식 끝나면 속이 불편하지 않게 죽을 준비해 주었어요. 사온 죽이지만 사랑이 느껴졌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느꼈거든요. 말로는 자기가 끓여준 죽은 맛이 없다고 할까봐서 사온거래요. 이렇게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2가지 응답되었죠. 마지막 경환이 군복무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한 가지 직장문제가 궁금하시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심처럼 또한 우리 가족이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열심과 충성으로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이루며 모두가 열정, 헌신, 충성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면서 승리할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금식을 통해 회복시켜 주셔서 답답한 모든 것을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절대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위기를 기회와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아요~.



<새 가족 소개>

김경숙 성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당진에서 인생의 제 2막을 살고 있는 김경숙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한성 필 하우스에서 남편과 23살 취준생 아들 그리고 22살 대학생 딸과 함께 다복한 가정을 꾸려 가고 계십니다.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는 데요?? 6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1년 정도 하셨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그러다 여러 가지 여익치 않는 사정으로 인해 기나긴 방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여쁜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곁으로 오신

우리 김경숙 성도님을 박수치며 환영합니다. 우리도 이주 말 할 수 없이 기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셨던 주님은 이제 다시 품에 안은 성도님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처음 이종희 집사님의 권유를 통해 우리 교회와 인연을 쌓기 시작하셨고요~ 신앙의 확신이 없고 의심하며 받은 억지로 성전을 출입하시던 성도님에게 채근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려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하시네요. 다시 재 등록을 하시고 받은 심방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25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권면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을 일일이 다 쓰기엔 이 지면이 너무 부족하고요~~ 엄청 축복의 말씀이며 또 엄청 은혜 받으셨다니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성도님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기도하심으로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 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김경숙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알아가기

-임경아 권찰-

1. 처음으로 교회에 갔을 때는 언제였나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가게 되었나요?

저는 어릴 적 동생들과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계시는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초등 4학년 때요. 그 당시 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동생들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지요.

2. 학창시절 권찰님은 어떤 여학생이였는지요?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과목과 가장 점수가 잘 나왔던

과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활발한 면도 있었고, 소심한 면도 있었고, 까불까불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고 점수가 잘 나왔던 과목은 음악이었고요.

3. 남편은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나요?

승민 아빠는 그 당시에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승객이었죠. 제가 단골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택시요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제 나이 27살 이었는데, 22살 인줄알고 제게 데이트 신청도 못했다고요. 한참 후 제게 밥을 같이 먹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귀고 결혼했네요.

4. 남편 자랑 해 주세요. ~

다혈질 성격이지만 자상할 땐 엄청 자상해요. 요즘은 설거지 밥 빨래 등도 자주 해주고, 애들 등하교에 병원 데리고 가는 것까지 남편이 해 줍니다.

5. 자신의 성격 중 장단점은 무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성품을 가진 집사님이 되어 주님 일 하시고 싶은지 말씀해주세요.

장점이자 단점인거 같은데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 후에는 항상 그 사람의 기분은 어땠는지, 내가 잘한 건지 어떤 건지 등을 곰곰이 생각해요.

그런 것이 많이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저는 장집사님과 송집사님 같은 집사님이 되고 싶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는 집사님요.

6. 큰아이는 어떤 부모에게나 아픈 손가락인데 승민이를 키우면서 기억나는 것이나, 크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승민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선생님께 많이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께 꼬집혀 오기도 했어요. 어떨 땐 목의 목걸이가 목에 상처를 크게 내 오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너무 속상했어요. 극복한 방법은 그 선생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많이 힘들었었죠.

7. 성경속의 인물들 중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아~~ 그 부분은 좀 더 생각 해 보겠습니다. ^^

8. 나에게 교회란 ()이다.

안식처이고 피난처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생각나니까요.



9. 작년 가을 심방 말씀을 받고 어떤 결심을 하셨으며 지금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계신지요?

심방말씀 내용 중에 교회에 오르락 내리락 열심히 하고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과 어우러 더우려 잘 지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10.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승민이 온전한 치료를 통한 강건함입니다

11. 청소 봉사를 매우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본적이 있어요. 앞으로 교회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감동 주시면 무조건 실천하겠습니다.

12.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전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려하면 지루해하고 이야기가 왜 삼천포로 빠지냐고 말하곤 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안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13. 권찰님은 남편에게 어떤 아내이고, 아이들에겐 어떤 엄마인가요?

남편에겐 어리광부리고 떼쓰는 아내이고요, 애들한테 꼭 해 주어야 할 것,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말고는 잘 돌보아주지 않는 엄마인 것 같아요.

14. 시부모님께 효성스런 며느리신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전도요. 같이 우리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15. 10년 후 권찰님 가정의 모습을 스케치해주세요.

남편과 함께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신랑은 차량 봉사하고 주일날 저랑 함께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고 싶어요. 함께 교회 봉사하는 믿음의 가정요.

16. 6월 표어가 '영혼의 열정을 나타내라'입니다.

열정을 드러내고 계신지요?

아멘~^^ 전에 안하던 기도모임도 다니고,

에스더 모임도 열심히 나가려고 노력하구요, 율동도 열심히 할 겁니다.

17. 내년도 구역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 누구신지 모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잘 이끌어주세요. 열심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

18.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랑이요. 제가 이만큼 사람 된 것은 전적으로 남편 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남편을 제게 붙여주셔서요 .

19. 요즘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승민이 아빠가 자주 속이 아파요. 위궤양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프대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에 내시경 다시 하는데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온유구역-



샷룸~

어느덧 2017년도 상반기를 지나는 시점이네요.

어찌 보면 생소한 구역 명으로 바뀌게 되었고 사면 끝에 저를 비롯한 총 6명의 온유구역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해를 다짐하면서 1년을 열심히 이끌겠노라 다짐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유구역은 연령층이 다양하고 젊은 식구들이면서 모두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먼저 **박선진 집사님**을 소개 합니다.

어린이집에 출근하면서 아이들과 전쟁을 치루며 지쳐있는 육신으로 가정과 교회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으며 어여쁜 두 딸의 엄마로서 가정을 충실히 이끌면서 남편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기도로 매진하고 있는 부지런한 집사님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의 꽃이라 불리는 **장미라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교회의 강단을 꽃꽂이를 통해 아름답게 섬기고 있으며 여린 마음과 눈물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의 입술과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으로 성전을 뒹으며 기도의 열정을 통해 주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며 가정에선 막내이지만 부모님께 효를 아

꿈없이 다하는 사랑스런 집사님입니다.

이번엔 **김진숙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송산면 명산리에서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섬기며 특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의 역할을 사명과 열심을 다해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과 하나 된 선생님께서 구역과 기관까지의 지경을 넓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부모님의 농사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기쁨과 힘이 되고 있는 예쁜 딸이랍니다.

이번엔 더 장거리로 가볼까요?

구역 식구들 중에 가장 멀리에 살고 있는 **한예지 권찰님**입니다.

서울에서 신혼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 바쁜 일정에도 본 교회를 섬기기 위해 꾸준히 예배에 힘쓰고 있으며 매 주마다 성경읽기로 구역장에게 순종함으로 기쁨을 주고 있으며 주부임에도 열짱, 몸짱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론 영짱으로 엄지척 할날을 기대하고 있는 어여쁜 권찰님입니다.

다음으로 막둥이 **김소현 권찰님**이 있습니다.

구역의 막내이지만 열정만큼은 최고인 권찰님 다들 아시죠?

올해는 두 식구가 세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어느 해보다 힘들게 하루하루 여기까지 왔지만 임산부의 몸으로 직장도 가정도 신앙생활도 꾸준히 감당해왔으며 특히 구역 부활절 운동을 지도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그 덕분에 은유구역의 멋진 작품을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보여드렸고 구역장의 말이라면 항상 YES로 힘이 되고 있는 딸과 같은 권찰님입니다.

어찌 보면 모두 출석하기가 힘든 구역이지만 나름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연합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을 아끼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남은 하반기도 열심 낼 것을 다짐하면서

어느 구역보다도 영성으로 똘이지 않는 구역의
한성도 한성도가 작년보단 훨씬 성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구역이길 소원합니다.



찬양예배.



-9-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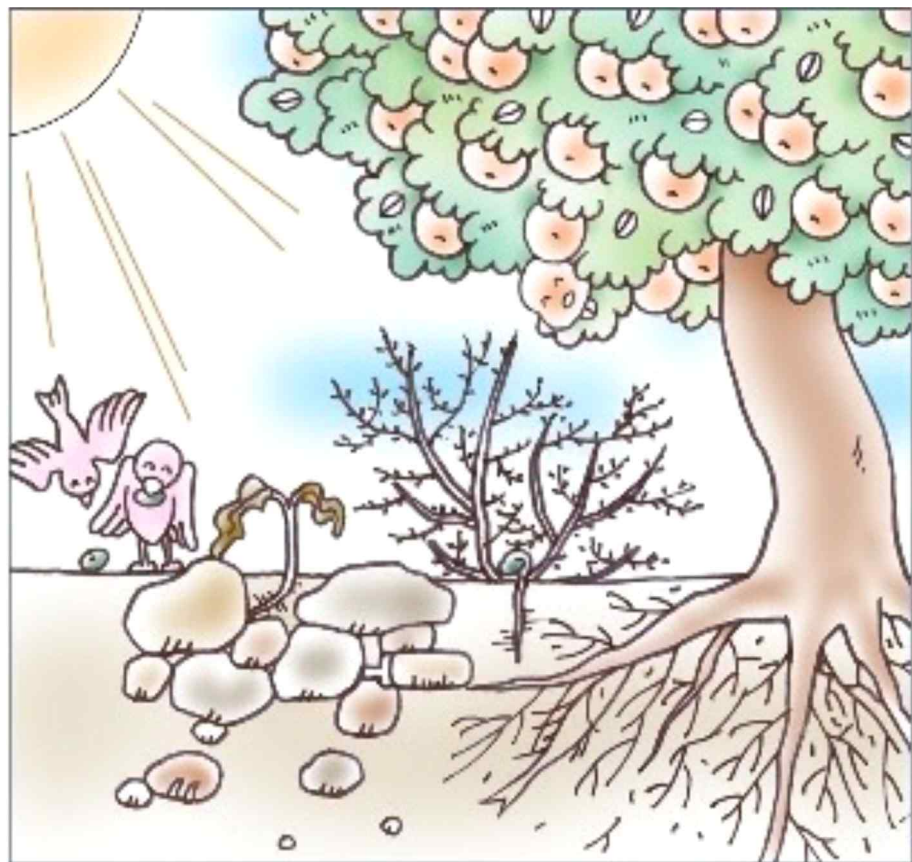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 13:15)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 숨은그림찾기



종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막 4:20) —————

[숨은그림 : 모자, 아기절병, 물고기, 돌리 얼굴, 숫자 3]



웃으십시오!

매 예배 시간마다 또는 추수 감사절 찬양대회와 교회의 각종 행사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지요? 청년과 학생들로 구성된 반주팀 말이에요~

누구 한 아이도 억지로 하지 않고 받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반주팀입니다.

각종 대회나 특송 등 찬양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반주 부탁을 단 한번도 거절하지 않고 바쁘고 힘든데 내색 없이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런 예쁜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들의 열정과 헌신의 모습을 귀히 여기며 때론 어린 아이들이지만 도전받고 은혜 받고 또 본받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들의 장래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 소개>

아담

뜻 : 사람, 붉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이요 천하 인류의 조상이다(눅3:38).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창2:9).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창1:26).

성경은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증거한다(롬5:12).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교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여섯째 되는 마지막 날 창조되었으나 앞서 창조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직접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출산이나 발육과 성장과정이 없이 처음부터 성인으로 창조된 인류의 시조가 된 것입니다.

아담은 혈통적으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로 지음을 받았고 현재의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인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부인의 권유로 함께 먹고 타락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불행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 특 집>

안식교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1. '안식교' 현황

미국의 시한부종말론주의자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의 사상을 이어 받은 엘렌 지 화이트(Ellen G. White)로부터 시작된 '제칠일안식일 예수 재림교'(Seventh day Adventists 일명 안식교)이다.

관련 기관으로는 병원(위생병원)과 교육기관(삼육 초-중-고-대학교, SDA영어 학원)과, 출판사(시조사, 월간[시조]발행)와, 삼육식품 등이 있다.

2. 시한부종말론과 안식교의 출발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윌리엄 밀러의 소위 시한부 종말론에서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불발로 끝난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렌 지 화이트가 계시를 받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나름대로 재해석함으로 생겨났다.

3. 율법적인 구원관

안식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는 집단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고 있고, 현세의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4. 안식일 문제

안식교의 주장에 의하면 안식교는 '남은 자손'으로서 참 교회요, 로마 가톨릭은 배도(背道)했으며 개신교회는 성서 진리로부터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인간의 계명을 따르는 것으로 거짓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침성의 표'를 받으며, 가장 참혹한 심판을 초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안식일 준수'는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5. 계시론

안식교에서는 비록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이며 하나의 신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엘렌 지 화이트가 보았다는 환상이나 그녀가 쓴 책들 또한 그들의 특별계시이다.

특히, 말세의 참 교회의 특징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엘렌 지 화이트야말로 그 '예언의 신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로서 그가 받았다는 계시가 말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라고 주장함으로 안식교는 성경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가진 자들이다.

6. 영혼 멸절의 문제

안식교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과 같이 영원한 지옥과 사후의 영혼의 존재를 부정함으로 소위 영혼멸절설을 취한다.

즉 의인은 부활하여 영생하지만, 악인은 부활하여 불태워 소멸되기 때문에 지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7. 기타

1) 안식교에서는 예수를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아남는 이들] 시조사, 1994년, 엘렌화이트 저, 157쪽).

안식교인들의 교리가 성경에 근거를 두었다기 보다는 엘렌화이트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2) 우리의 부활의 첫 모델은 예수이시다.

그런데 안식교의 주장대로라면 모세가 부활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시조사, 1994년, 엘렌화이트 저, 157쪽).

3) 엘렌화이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는 성경구절을 단지 외형상의 형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창조시의 사람이 지금 지구상의 사람보다 키가 두 배 이상 컸다는 황당한 주장을 만들고 있다

([살아남는 이들] 시조사, 1994년, 엘렌화이트 저, 22쪽).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 10가지

美뉴욕 레저렉션 교회의 담임목사인 조셉 마테라 목사의 말이다. 그는 미국 보수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로, 최근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라는 칼럼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조셉 마테라 목사는 이 칼럼에서 "1981년부터 목회 사역을 해왔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었다"고 먼저 말하고, "교회 안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러면서도 이들 중 상당수가 세속적인 가치 체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 10가지를 소개했다.

1.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신앙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다(이를 무신론적 유신론이라 함 - 편집자주). 왜냐하면 이들은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으며,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

2.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속적인 셀피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외양),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우리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당신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이것이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들이 일을 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신앙의 공동체와 교제하는데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하셨다(마 6:33).

4.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사람들을 사귀려고).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목적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주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5.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곳 저곳에서 잼난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며, 성경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6.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일부로 만들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1-4).

7.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연애(데이트), 혼전성관계, 옷, 대중음악 등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들을 신봉한다. 이것은 나에게 '오리처럼 보이고 오리처럼 깼깼거리면 오리일 것이다(If it looks like a duck and quacks like a duck, then it's a duck!)'는 속담을 상기시켜 준다. 당신이 내적으로 세상의 가치 시스템을 찬양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며 세속적인 것이다.

8.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은 지난 5년이나 10년 사이에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포섭되어 있어서 영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구원 받지 않은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 등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의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9. 제자를 삼지 않는다.

구원 받은 이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한 명의 영혼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당신이 현재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멘토링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대위임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목회자나 장로 등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당신이 다른 이를 제자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0.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편할 때만 헌금을 한다. 이들은 자신이 자신들의 생명이나 돈이나 부에 대한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십일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소유의 10%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의 100%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이 돈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성경적 청기지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시사용어 Briefing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일컬어 카공족이라 한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대학생 5명 가운데 2명이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 생각한다. 고 답했을 정도로 카페는 젊은이들의 도서관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학생들이 카페를 선호하는 이유는 도서관이나 독서실보다 접근성이 뛰어나 혼자 또는 여러 명이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펫팸족

애완동물인 '펫(pet)'과 가족인 '패밀리(family)' 를 합쳐 생겨난 신조어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정이 많이 생겨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말이다. 펫팸족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넘어 관련 산업이 확산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가아직도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 한다.

치트키

'속이다' 라는 뜻의 '치트(Cheat)' 와 '키(Key)' 의 합성어로 게임 용어로 속임수라는 뜻이다. 치트키를 쓰면 게임이 잘 풀리고 유리해진다. 예능에 특정 출연자가 나오기만 하면 기본 이상의 웃음과 흥행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흔히들'예능 치트키'라고 부른다. 주로 쓰는 말을 예를 들면 만능 치트키, 웃음치트키 표정 치트키 이다.

제노포비아

'낯선 또는 낯선 사람' 이라는 '제노스(xenos)' '공포' 를 의미하는 '포보스(phobos)' 라는 두 그리스어를 합친 말로 생겨난 시사용어이다. 외국인 또는 낯선 사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일부의 물지각한 사람들이 있어서 생겨난 용어이다.

인플루언서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지칭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SNS나 인터넷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파급력 있는 일반인들이 늘면서 이들을 부르는 말로 사용한다. 특히 요즘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은 상당한 파워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하며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들을 '왕홍' 이라는 용어로 부른다고 한다.

<이달에 issue>

폭염 속 가뭄

우리나라는 지금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년만의 더위입니다.

30년만의 극심한 가뭄입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은 작년을 기준으로 폭염과 가뭄을 이야기 하는 지경에 이를 만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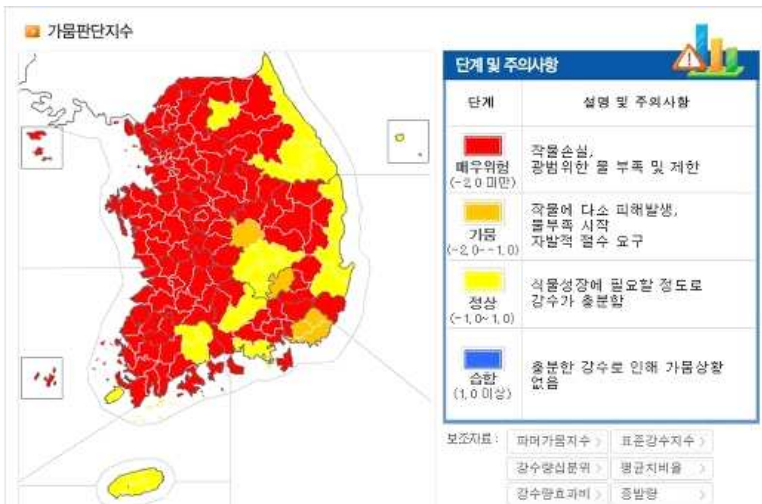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비는 많이 줄어 폭염과 가뭄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농경지의 경우는 비가 오지 않아 마을 곳곳에 설치 되어있는 저수지마저 매말라가는 상황이다 보니 논에 물을 대지 못해 벼가 말라 가고 뿌리채소인 무우나 당근 등은 매마른 땅에서 물을 찾아 이리 저리 뿌리를 뻗치고 있으며 과실들도 물이 부족하여 마르는 등 농민들은 시름을 더해가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가뭄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넘어 갔으며 이달 말에는 경계단계로 접어들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을 정도로 가뭄의 피해는 심각한 상태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물을 마구잡이로 쓰는 행동을 버리고 절약하여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겠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연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펼치려고 한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말씀을 더욱 따르고 순종하여 창조하신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하며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러한 자연 재해까지도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7월 제철음식>

7월

토마토

7,8,9월

과실이 크고 단단한 것, 붉은 빛깔이 선명하고 균일한 것, 꼭지가...



복숭아

7,8월

알이 크고 고르며 상처가 없으며 활기가 강한 것을 고른다.



블루베리

7,8,9월

진한 청색이 선명하며 과실일면이 팽팽하고 균일하게 천가...



감자

6,7,8,9월

감자의 표면에 흠집이 적으며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며, 무거우...



참외

6,7,8월

색깔이 선명하고 꼭지가 싱싱한지 확인하여 구입한다. 제철에 구입...



복분자

6,7,8월

약간 빨간 빛을 띠는 것을 고른다.



갈치

7,8,9,10월

은분이 벗겨져 있지 않으며 등이 약간 검정색을 띤 것, 은백색...



수박

7,8월

껍질의 색이 선명하고 선이 확실한 것, 자른 단면의 색이 곱고 씨가 검은...



옥수수

7,8,9월

껍질은 선명한 녹색이고 알맹이가 줄줄하며 수렴이 갈색...



자두

7,8월

껍질에 윤기가 나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 것을 고른다.



도라지

7,8월

잔뿌리가 비교적 많고 원뿌리로 잘라진 것을 고른다.



옥수수>

여름철 대표 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는 주 성분은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E와 마그네슘, 칼륨, 각종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 회복과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사대용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리놀레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주어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감자>

제철일 때 나오는 감자를 햇감자라고 하는데 이는 수분이 더욱 많고 탱탱한 것이 특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철분, 비타민C, 칼륨,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가가 풍부하여 조리하여 섭취했을 때 식감도 매우 좋다.

생즙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껍질 쥌 삶거나 쥌 먹는 것도 좋다.

토마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돕는 토마토는 유기산이 풍부하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알칼리성 미네랄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키는 작용이 있다. 또 붉은 색을 띠는 색소 성분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 예방과 각종 암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기도문

윤희자 전도사

12살 소녀는 별빛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신은 계십니까?

세월이 흐르고 키가 자라면서 소녀의 삶이 지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앞에 힘들어질 때
실로암 못 가로 부르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신 이십니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지친 곳에 희망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십자가에 옮겨놓으시고
"이제는 행복하여라 꼭 행복하여라"

그 소녀는 반 백에 인생 앞에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너무나도 닮고 싶어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 주신 행복 나 혼자만 소유하지 않고
오늘도 보내시는 그 곳에서 주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무릎 꿇고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 이달의 교회소식

1. 맥추감사절 촌극대회 / 7월 2일 오후5:00
2. 특별새벽기도회 / 7월 3일~7일
3. 요한남선교회 헌신예배 / 7월 9일 오후7:30
4. 침례문답식 / 7월 9일 오후12:30
5. 교사 헌신예배 / 7월 23일 오후7:30
6. 교사단합대회 / 7월 24일 오후7:00
7. 여름성경학교 / 7월 28일~31일 주제 : 바통터치

● 공지사항

1. 7월생활실천표어 / 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라
2. 홈페이지 사은품 지급제도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이달의 교우소식

1. 첫돌감사예배 / 이주희어린이 - 7월 1일
2. 군 전역 / 김연훈청년 - 7월 17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권찰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